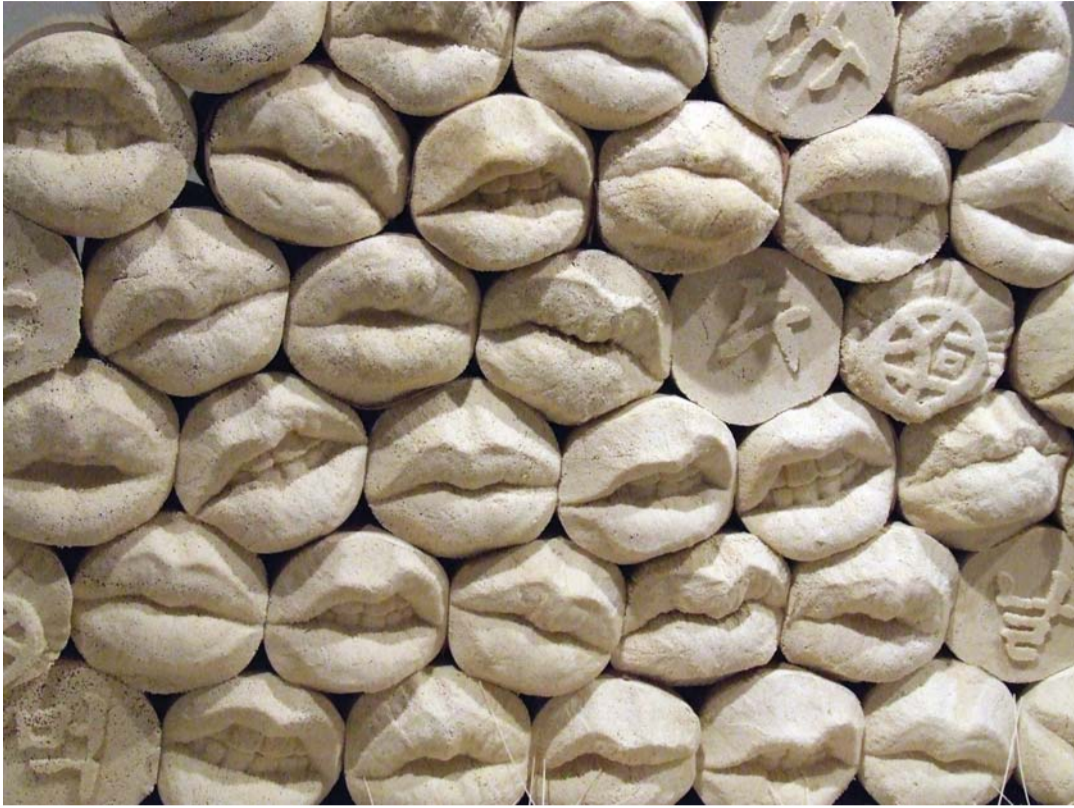


# 빵이냐고? 오늘은 예술이야!



홍상식 작 '말말말'

담양 담빛예술창고 12월 30일까지 '미식가들의 만찬' 전  
음식 소재 회화·설치·사진 등 50여 점...은유·역설 담아

전시장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의 표정엔 한결같이 웃음이 가득하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쾌한 작품들 덕분이다. 아이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고 편안한 전시다.

사다리를 놓고 거대한 식빵 위로 올라가기 위해 고군분투중인 작은 군인 인형들, 작품이 된 소고기 채끝살과 삼겹살, 나무처럼 쭉쭉 자라는 브로콜리, 하이힐의 뒷굽이 된 닭다리, 먹음직스런 도시락에 가득 담긴 폭포와 나무까지. 어느 것 하나 흥미롭지 않은 게 없다. 전시작들의 소재는 모두 '먹는 음식'이다.

담양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에서 오는 12월30일까지 열리는 '미식가들의 만찬'전은 마치 셰프가 자신만의 비장의 요리를 내놓듯, 7명의 '작가'가 음식을 소재로 한 회화, 설치, 사진 5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들은 각자가 선택한 소재를 통해 은유, 상징, 역설 등 다양한 표현법으로 작품 세계를 펼쳐놓는다.

전시장엔 노란 계란 프라이 꽃이 피었다. 어린 시절 일상의 기억과 편린들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작업하는 최현주 작가는 유년 시절의 순수한 감성이 빚어내는 예쁜 꽃 같은 계란 프라이, 신비한 나무와 같았던 브로콜리를 소재 삼아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환상의 세계를 풀어놓는다. '새를 꿈꾸는 바나나'는 하늘 높이 날고 싶은 바나나와 메추리알의 몸이 돌아난 날개가 인상적이다.

임안나 작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실제 음식물을 미니처 병정들과 배치·구성한 사진작업 '로맨틱 솔저 Romantic Solidser' 시리즈를 전시 중이다. 광광 터지는 팝콘 아래 매복한 군인들과 달콤한 거대한 솜사탕을 겨냥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 등 어떤 면에서 로맨틱한 장면은 전쟁과 폭력의 비극적 상황이 겨여오는 고통과 두려움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잔칫날 먹는 '국수'는 홍상식 작가의 손에 의해 '작품'으로 탄생했다. 어린시절 동네 가게에서 사온 국수 묶음을 밀고 다듬어 '모양'을 만들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추억이 모티브가 된 작품으로 인간의 욕망과 일상을 위트있게 담아냈다. 특히 전시장 바닥에 자리한 설치 작품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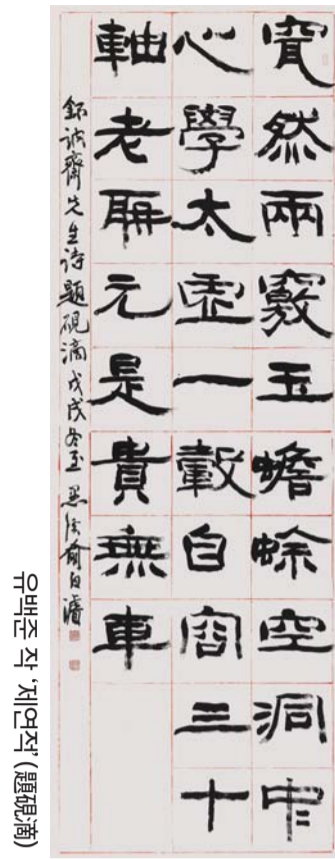


최현주 작 '새를 꿈꾸는 바나나'

전통산수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전환시켜 친근하고 유희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하루.K 작가는 폭포, 산사, 바위, 나무 등 자연에서 포착한 장면과 그 자연을 즐기는 인간의 모습을 배치한 '도시락 시리즈'를 통해 성대하고 풍성한 '산수성찬'을 차려냈다.

그밖에 각종 소고기, 삼겹살, 목살, 소세지 등 육류 모티브와 바나나를 결합한 작품을 전시 중인 허보리 작가와, 생선날과 훗합 곱질, 닭다리 등 인간이 먹고 남긴 동물의 일부를 소재로 삼아 생물과 무생물과의 간극, 생명체의 경계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김문영 작가, 서로 다른 과일을 한 화면에 결합시킨 황정후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1-383-824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부평민간·차민적(張炳勳)

## 전라도 정도 천년-놀재 박상 선생 현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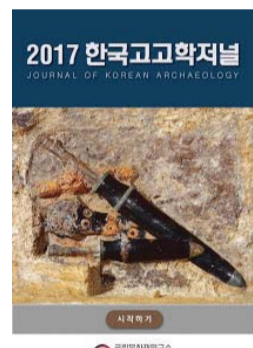
학정연우서회전 29일~12월 5일 금호갤러리

올해는 광주·전남이 '전라도(全羅道)'라는 이름으로 불린 지 꼭 10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매년 한 차례씩 회원전을 열고 있는 (사)학정연우서회(회장 유백준)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지역이 배출한 인물 가운데 그 사상과 삶을 본받을 만한 이를 선정, 그의 글을 작품화했다. 올해 회원들이 마음에 담아 공부하는 이는 광주 출신 문인 놀재(訥齋) 박상(朴尙·1474~1530) 선생이다.

제42회 학정연우서회전 '전라도 정도 1000년 호남의 인물과 정신전-호남사립과 시문학의 종장(宗匠) 놀재 박상 선생 현창'이 오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 고유의 선비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았던 놀재 선생은 담양부사 등을 지낸 조선중기 문인으로 청백리로 칭송받았으며 수많은 상소를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리 사상을 실천한 인물이다. 현재 월봉서원에 제향돼 있는 선생은 시문에 뛰어났으며 특히 1100수에 달하는 시는 선생의 사상과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 시문학사(史)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번 전시에는 김성덕·박래호·이돈홍 선생이 잔조출품했으며 김종태·강덕원·강수진·강영화·고경석·곽성구·김연엽·김형욱·이남진·이돈륜·임동호·전인식·황철숙 등 오랫동안 서예와 인연을 맺어온 회원 108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놀재집' 등 선생의 유고에서 글을 뽑아 전해해행초 등의 서예오체와 전각, 문인화 작품으로 놀재선생을 추모하고 있다. 전시 개막은 29일 오후 5시. 문의 062-222-415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증강 가상현실 콘텐츠 구현 문화재청 '고고학저널' 발간



상현실 콘텐츠를 구현한 '2017 한국고고학저널'을 발간했다.

'2017 한국고고학저널'은 한국고고학의 주요 발굴조사 성과를 담은 잡지 형식 보고서로 학계로부터 주목받은 유적을 선정해 성과와 의미를 담았다.

보고서에는 22개소 유적이 발굴조사 성과가 수록돼 있는데, 이 중 김포 신곡리 유적 등 5개 유적의 사진·도면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 기술을 입혔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한국고고학저널'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앱을 실행한 상태로 책자에서 'AR'이 표시된 곳을 모바일 휴대폰으로 비추면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3차원(3D) 표본과 층위사진, 인골 복원 과정 등이 휴대전화 화면에서 증강현실 형태로 구현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누리집(www.nrich.go.kr)에도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 8인조 소울트레인의 리듬 앤 블루스

내일 광주문예회관



8인조 대형밴드가 선보이는 리듬 앤 블루스(R&B) 음악의 깊은 감성을 만난다. 밴드 소울트레인(사진)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소울트레인 및 아이위 소울' 공연을 연다.

'2018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소울(Soul) 음악을 추구하는 이들의 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개성 있는 목소리의 임은정과 기타리스트 광경목을 비롯해 이원재(베이스), 이정학(드럼), 김 신(트럼본), 김성민(트럼펫), 조성현(색소폰), 이지하(건반)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보기 드문 8인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경목과 브라스(금관 악기) 멤버들이 모여 만든 이 밴드는 2010년부터 2년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에서 김추자 헌정 밴드 '춤추자' 밴드로 활동해 이름을 알렸다.

이날 무대에서는 '곰속의 연인', '말해봐', '소울 메들리', '미련' 등을 무대에 올려 탁월한 연주력과 감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62-613-8237. /백희준 기자 bhj@

## 라포르색소폰 앙상블 콘서트

오늘 광주문예회관

라포르색소폰 앙상블(단장 박치영)의 열세 번째 콘서트가 27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2004년 2월 창단한 라포르색소폰 앙상블은 직업과 연령이 다른 아마추어 음악 동호인들이 모여 매년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다.

가수와 리포터로 활동하는 오원희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

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속 음악을 시작으로 재즈음악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마차', '여인의 향기', '향수', '재스슈트', '라데츠키', '대부', '아모르파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 1세대 색소포니스트 김수열과 타악그룹 얼쑤, 포크가객 정용주가 함께 하고 류상호·박치영·조성현·조기정·손철홍·김영근·남시호·김정민·유승우·송삼홍·조상호가 출연한다. 문의 010-4608-7942. /백희준 기자 bhj@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 9. 1(토) ▶ 11. 30(금)

**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테마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

커피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